

인항 30년, 젊음의 에너지로 충전한 명예를 - 드높일 때

인항고등학교 이사장 이 해 우



인항고등학교 개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인항고등학교 30년사 발간을 통해서 젊음의 에너지를 충전하여 그 동안의 학교 역사를 담아내는 시금석으로서 앞으로도 인항다운 전통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가 지역의 대표 학교로, 세계로 뻗어 가는데 역할이 배가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30년사 발간이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인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한껏 드높이는 신명나는 한마당 축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한 모든 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하며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학교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인재 양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교직원들의 지도와 노력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진로와 진학을 탐색하고 학업을 부단히 쌓아 필요한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준엄한 현실입니다.

본교는 인천항에서 불철주야 부두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후학 양성을 위해 40여 년간 틈틈이 모은 정성으로 세운 세계 유일의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1988년 개교한 이래 재단 설립 취지에 맞춰 성실함과 공경심을 갖춘 완성된 인격자로서 사회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학생들을 양성해왔습니다. 또한 정보화와 세계화에 대비하는 교육 시스템과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교육과정을 충분히 갖춰놓고 지역 사회의 인재를 육성했다고 자부합니다.

인항 30년, 젊음의 에너지로 충전한 명예를 - 드높일 때

인항고등학교 이사장 이 해 우

능력을 갖추고 젊음을 마음껏 발산하는 등 특히 지역 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교육발전을 물론 시민의식 향상에 공헌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을 대표할 만한 교육기관으로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매우 힘든 우리 현실에서 새로운 희망과 열정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앞장서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인항고등학교 개교 30주년을 즈음한 30년 학교역사 발간을 거듭 축하합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앞길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인항고등학교 개교 30주년
30th anniversary